

김문수 후보에게 군인은 오염원일 뿐입니까

오늘 김문수 후보는 국방공약을 발표하며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처우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김 후보는 “하이닉스에서 나오는 구리보다 특전사 6,700명 군인이 와서 팔당호를 오염시키는 것이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던 장본인입니다.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이 오염원에 불과하다는 뜻입니까. 구리보다 군인을 낮춰 보는 사람의 국방공약을 어떻게 믿으라는 말입니까.

낮은 곳에서 일하겠다는 김 후보의 말과는 달리 그의 발은 높은 곳만을 향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난 12일, 억울하게 유명을 달리 한 해병대 상병의 묘역을 건너편 것을 모든 국민이 똑똑히 보았습니다.

지난 2017년에는 댓글부대를 운영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억울할 것이라며 두둔하기도 했습니다. 댓글부대에 투입된 장병들이 억울했으면 억울했지, 그것을 지시했다가 결국 유죄가 확정된 국방부 장관이 어떻게 억울하다는 말씀입니까.

극우에 눈이 멀어 정치군인을 두둔하고, 억울한 장병은 외면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을 오염원으로 폄훼한 것이 바로 김 후보입니다. 군인을 동원해 내란을 획책한 대통령을 지금껏 옹호한 바로 김 후보입니다.

이런 후보가 국군통수권을 달라고 나선 것을 어느 국민이 용납하겠습니까.

아무리 쇼를 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극우후보 김문수 후보에게는 50만 국군을 지휘할 권한은 결코 쥐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5월 25일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
단장 강득구, 부단장 정준호·박관천